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티엔티다 탐즈른깃*

I. 序論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2언어(Second language)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 그들의 생활양식 전통문화의 전반을 배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목적은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즉 학습자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며, 책에 쓰인 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쓸 수 있도록 습득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국가 사회적 인 면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이 일반 태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88 올림픽이 개최된 후라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 태국인들은 한국 하면

* 태국 국립 쥘라롱콘대

먼저 북한을 떠올리곤 하였다. 그러나 88 올림픽 대회 광경이 생방송 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전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관광 산업과 경제 교류의 증가로 인해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매우 긴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태국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증대되는 요인과 태국 국립 추라롱콘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現況과 개선 방향을 구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泰國에서의 韓國語 教育 現況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국은 최근 몇 년 동안에 한국 정부 장학 재단과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구직을 위한 회소가치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것은 극히 제한적인 숫자이다. 오히려 올림픽 이후로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방콕 소재 동양 최대 개방대학(Ramkhamhang University)에서는 한국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5천명에 달하였다. 아울러 대학의 학자들간에 한국학을 연구하려는 경향이 늘어났다.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비중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대되리라 본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어의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실지 연구를 하거나 유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향으로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인 현장 교육을 받는 교환 학생 제도와 교환 교수의 실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부터 창설 연대를 기준으로하여 본 대학의 한국어과의 沿革, 설립

목적, 교과과정, 교수 방법, 개선 방향 전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공공 기관의 활동

1995년 12월 22일, 태국 총리부 산하 경제 기술 협력(DTEC; Department of Technology & Economic Cooperation,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에 MOU체결 협정 조인식이 태국 경제기술협력부에서 치러졌다. 이 자리에는 주태 한국 대사, 1등 서기관, 국제 협력단 태국 사무소장과 각 대학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 대학은 정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부 외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대학의 아시아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Asian Research)와 태국정보센터(Thailand Research Center)를 꼽을 수 있다. 아시아문제 연구소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와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국가들과는 달리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지리적 조건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동남아시아 해양법과 태국 조상 뿌리찾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태국정보센터에서는 동남아시아 및 태국에 대한 연구 자료와 사회과학의 갈등 이론과 발전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태국 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

태국에는 국립 대학이 모두 20個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工學, 科學, 農業技術 대학이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모두 9개이다. 그러나 首相處 산하 기관으로 대학성을 설치하여 전국의 국립 대학을 관할하였다. 또한 태국의 府(짱왓)에는 “싸타반 랏차팻”이라고 하는 대학이 모두 36개가 있다. 이들 대학은 사범대학 사무소가 있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 대

학인 타마삿 대학교(法政大學校), 씨라빠곤 대학교(藝術大學校)와 방콕에 소재해 있는 잔까셈 대학과 썬두셋 대학 등 몇 개의 사범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만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매학기마다 한국어 강좌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 학기의 수강 신청수에 따라 개강 여부가 재결정되어 강좌를 개설한다. 이 대학들의 한국어 교수 요원은 현지 한국인이나 한국 코니카에서 파견한 국제협력요원이다. 그리고 태국의 대학 중 한국어과를 개설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1) 줘라롱콘 국립 대학교(朱拉隆功大學校): 방콕 所在

2) 송크라 나카린 국립 대학교(宋下王子大學校): 이 대학교는 수도 방콕으로부터 약 1,100Km 떨어진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다. 이 대학은 세 캠퍼스로 나뉘어 있는데 핫아이 캠퍼스, 밧따니 캠퍼스, 푸켓 캠퍼스이다.

3) 부라파 국립 대학교(東方大學校): 이 대학교는 방콕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촌부리府에 있다.

3. 줘라롱콘 국립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문관관료학교로 확대되었던 사관 시중학교는 1916년에 4월 26일 줘라롱콘 대학교로 승격되어 태국 최초의 대학교가 되었다. 1917년 10월 최초로 본 대학은 의과대학, 공과대학, 문과대학(과학부(Science) 포함), 법학 대학의 4개 대학이 설립되었다. 처음 문과 대학부와 과학부에서는 대부분 의과학 준비 과목만을 가르쳤다. 과목으로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영어학, 불어, 역사학 과목만을 가르쳤다. 그 뒤 1928년 문과대학은 문과 과목을 개설하였고 기간은 3년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증과 함께 중학교 교사증을 주었다. 이수 과목은 태국어, 바리어, 영어, 불어, 역사학, 지리학, 불교학분석, 수학이었으나 뒤에 독어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문과 과목 이수 후 3년째 되는 해에 교직 과목을 1년 더 이수해야 했다. 또한 1930년 理學部 과목을 3년 과정으로 개설하였는데 2년간은 과학 과목을 이수하고 문과 과목과 마찬가지로 1년간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장과 함께 중학

교 교사증을 주었다.

1933년에 과학부를 문과 대학에서 단과 대학으로 분리시켜 과학 대학이 되었으며, 문과 대학은 문과학부와 교사양성학부로 나누었다. 과학대학도 과학부와 교사양성학부로 나누었다. 그러나 동년에 다시 문과대학과 과학 대학이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단과대학은 9개의 學部로 나뉘었다. 즉 도서관과 문서실부, 화학부, 물리학부, 생물학부, 수학학부, 고대 동양학과 태국어학부, 현대어학부, 지리와 역사학부, 그리고 교사양성학부이다. 1934년 교과과정을 재개편해서 1935년에 처음으로 33명의 문학 학사가 나왔으며, 1942년에는 2명의 문학 석사가 나왔다. 1943년에는 문과대학과 과학부가 다시 분리되었으나 대학장과 사무직은 분리되지 않았다. 1948년에는 교육 학사를 배출하기 위해 다시 문과 대학의 명칭을 문과 사범대학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4개의 학부를 두었다. 즉 태국어학과 고대 동양학부, 외국어학부, 지리과 역사학부, 교육학부이다. 1950년 정식으로 문과대학과 과학대학이 분리되어 각각 대학장을 두고 사무직도 따로 관리하였다. 1955년에 도서관리학부를 개설했다. 1957년에 문과 사범대학은 단과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1961년 문과대학은 교과 과목을 6개의 학부로 재편성하였다. 즉 태국어학부, 동방언어학부, 영어학부, 서방언어학부, 지리학과 역사학부, 도서관리학부이다. 그 뒤 1971년에 철학학부를 개설하고 1972년에 연극예술학부를 개설하였다. 동년에 다시 지리학과 역사학부를 분리하였다.

1999년 현재 문과대학은 11개의 학부를 두고 있으며, 학부라는 명칭을 학과로 대신 바꾸었다. 즉 태국어학과, 영어학과, 역사학과, 지리학과, 도서관리학과, 철학과, 연극예술학과, 동방언어학과, 서방언어학과, 언어학과, 비교문학학과이다.

쥬라롱콘 대학교 문과대학 동방언어학과에는 한국어과는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단지 교양선택과목으로 한국어 1, 2, 3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문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 대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교재는 한국어 3까지 직접 편집해서 만들어 쓰고 있다. 현지 제도상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공에 대해서 적어도 세

명의 동일 전공에 대한 교수 요원이 있어야 한다. 쥘라롱콘 대학교는 20개의 국립 대학 중 하나이다. 학교 예산의 75%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내에 모든 대학은 대학성의 관할에서 독립해서 자체 경영을 해야만 한다. 이미 쥘라롱콘 대학은 자체 경영을 발표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본 대학에는 18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학생은 27,236명, 교수는 2,950명에 이른다.

문과대학(The Faculty of Arts)에는 11개의 학과(Department)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언어 관련 학부는 태국어학과(Dept. of Thai), 영어학과(Dept. of English), 동방언어학과(Dept. of Eastern Language), 서방언어학과(Dept. of Western Language)로서 16개의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16개의 국어 중 언어과, 말레이과, 한국어과, 포르투갈어과는 교양과목이고, 베트남어와 미얀마어는 매학기 학생 수에 의해 결정한다. 그 중 동방언어학과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어는 교양 과목으로밖에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본 대학교에서는 1989년 11월부터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어 1의 경우는 한국어의 기본 구조, 기본 문법, 특히 어미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한국어 2에서는 주로 단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영화나 노래를 통해서 실제 쓰이는 말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과거 야간 강좌는 대부분의 수강 인원이 직장인인 관계로 회화 구사는 대학생보다 월등하게 잘한다. 그러나 기초적인 문법 실력이나 응용 능력은 매우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들을 지도할 때는 문법과 문장 활용에 주

목적을 둔다.

여기에서의 정규 과정 학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교육 기간>

제 1학기: 6월~10월

제 2학기: 11월~3월

한 학기의 총 수업 시간은 교양 과목 72시간으로 18주간이다. 수업은 일주일에 4시간이다. 하지만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는 60시간으로 10주간이다. 수업은 일주일 6시간이다. 현재 일반인 강좌는 개강하지 않고 있다. 본 대학에서 쓰는 교재는 주로 서울대 어학연구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 임흥빈의 뉴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용, 한국어 명도원 등의 서적을 참고하여 편집 번역해서 한국어 1, 2, 3의 책자를 만들어 쓰고 있다. 매년 교재의 내용을 바꿔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매학기의 수업 개강 여부는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 의해 결정된다. 본 한국어과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1, 2, 3을 개설하고 있다.

<총괄 목표>

교육목표는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회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인 문법 설명과 새 문형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문법 설명도 한다. 문형 바꾸기 연습하기, 작문 연습하기를 하여 작문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배운 문법 사항을 이용해 발표력과 듣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문장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아울러 보충 낱말에서 어휘의 보강에 중점을 둔다. 어학 실습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동시에 한 학기에 한 편의 영화를 무조건 매 주에 한 시간씩 보고 들어서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언어 학습의 지루함을 해소시킨다.

<교재 내용>

1) 한국어 1

제1과 한글과 발음

제2과 발음

제3과 안녕하십니까?

제4과 인문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합니다.

제5과 수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6과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제7과 너무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2) 한국어 2

제1과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제2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제3과 지난 주에 배운 걸 복습하거나 음악을 들었어요.

제4과 서울역에 간 일이 있어요.

제5과 맵지만 태국 음식과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제6과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3) 한국어 3

제1과 요즘은 꽤 추워졌어요.

제2과 모레가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을 좀 살까 해서요.

제3과 대도시에 사람이 적으면 좋겠어요.

제4과 시리차이씨로 왔으면 좋겠어요.

제5과 이번 연휴에 부산에 가기로 했는데요.

IV. 주라롱콘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항목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들은 모두 모국어로 이루어지며 주로 번역 위주의 수업이고 주

해를 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초급 과정에서는 태국어로 설명이 필요하지만 중급 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물며 초급 과정과 같은 교수 방법을 쓰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의 습관화된 학습 방법을 들 수 있고 한편 교양 과목일 경우에 대부분 한국어 지도 교원은 학생들에게 강박관념을 주는 교수법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려면 이상적인 지도 방법과 전체 교과과정을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 지도해야 한다.

2) 말과 생활,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가 상이한 나라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태국에 태국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교재가 있다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사려된다. 또한 한국어 발음은 모국어와 대조해서 지도한다. 그리고 문법 용어를 통일해서 지도해야 한다.

3) 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부족하다. 그러나 비디오나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좀 더 흥미를 돋구어 주는 수업을 이끌어 간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4) 현재 본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주로 쓰고 있지만 본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수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중에 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또한 교수요원은 자신이 쓰는 언어가 표준어인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지도한다.

앞으로 태국에서의 이러한 한국어 교육 방법의 파행성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립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기관이 있어 이 기관은 각 대학에 설립된 외국인들을 위한 어학 연구소를 관리하여 모든 어학 연구소는 통일되고 체계화된 한국어 교육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외국인 한국어 교원은 물론 재외 한국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대학원의 설립 또는 연수원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V. 展望과 結論

현재 본 대학은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요원이 2명으로 조교수 한 명과 전임 강사 1명이 있다. 내년 2000년도에는 문과대학 학생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문과대학 내에는 단지 한국어 즉 언어에 관련된 과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부전공 과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학 방면에 능숙한 교수요원을 양성할 것이다. 주라롱콘 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학과에는 언어학에 관한 서적과 고전 연구 등의 서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한국에 있는 주요 서점 등과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서적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어 문법, 맞춤법, 발음에 대한 정리서, 표준어 및 순수한 한국말에 대한 소개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서적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태국의 학제는 한국과 같이 한국어과 정원을 몇 명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수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물론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하는 체제는 학교측에서 정하게 된다.

문과대학은 한 학년이 대략 250명이다. 학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2학년 진급과 함께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따라서 부전공과 교양 과목이 매우 보편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수요원을 양성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친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 다양한 강좌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면 한국어 과목이 전공으로 격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태국에서의 한국어 강좌는 공급자 시장이지, 수요자 시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래의 한국 가이드 단속에 관한 태국 관광청 공문 중의 일부를 보면 앞으로의 수요자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현재 태국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 여행사들의 덤핑

경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청 내 한국담당부서와 관광업 등록청 그리고 재한 태국 대사관의 협조 하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한국투어의 이기적인 자세가 전체 태국 관광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이 영어 구사가 불가능해 항상 가이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인 및 태국인이 서로 협조하에 관광객을 속여 옵션 투어 및 쇼핑에서 과도한 요금 및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3) 한국인과 태국인 합작 형식의 여행사에서 비정상적인 덤핑 요금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행사를 해 왔으나 이 한국과 중국의 두 시장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계로 그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로 인해 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갖는 태국의 이미지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을 핸들링하는 여행사의 한국 직원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빌미로 불법 체재 및 불법 취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재까지 관광청은 모든 한국 여행사에 대해 시장 및 영업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태국인 관광 안내원까지 조사를 해 왔다.

태국 관광청 장관은 앞으로 한국 가이드가 세팅 가이드와 같이 투어를 해도 모두 검거할 것이며 태국 내의 모든 비합법적인 한국 가이드는 태국의 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의 투어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태국인의 안내 하에 이루어지도록 공고하였다.

태국 관광청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국가 관광 안내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약 300명의 안내원과 태국 남쪽의 푸켓 섬에도 약 200명이 한국어로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해 이미 관광청에 등록했다고 본 대학에 통보해 왔다. 태국 관광청은 앞으로 2년 내에 이 500명의 안내원을 한국어 안내원으로 배출해 낼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한국인이 현지에서 관광 안내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대학에서는 태국 관광청의 협조 아래 관광 안내원을 양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본 대학에서 충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푸켓 섬의 200명은 남쪽 송크라 대학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광청은 300명은 주라롱콘 대학과 씨라빠콘 대학이 공동으로 양성할 것을 원하나 아직 미정이다.

본 대학은 우선 300명 중 20명을 선출해서 1차적으로 한국어 관광 안내원을 배양해 낼 예정이다. 연수 기간은 1년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본 대학에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관광 안내원 양성 교육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내부적인 양적 발전이 중요한 시간들이었다. 지금부터 질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화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은 역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말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차차 한국어 교육의 연륜이 쌓여가며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한국어 교육의 주된 焦點을 이 사항에 맞추어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어를 맡은 교사로서 본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절실한 문제는 가르치는 말에 통일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특히 한자어와 외래어의 경우에 심해진다. 본인이 서울대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는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교수 50여 명의 강의 내용을 녹음, 분석해 그들이 평소 강의 시간에 외국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한 교수의 70%가 한 문장에 최소한 한 개 이상 외국어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 남발 사례는 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쉽게 발견된다. 문제는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점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말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기준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1~2년에 한 번씩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再充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태국은 스스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간 한국어 교육은 적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존 기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풍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태국에서 교육을 맡은 우리들의 책임이 莫重하다.

《 참고문헌 》

쁘라썬엣 씨라피팟(1997), 『문과대학학사 교과 과정서』, 주라롱콘대학교 출판사.

주라롱콘문과대학 한국어과(1999), 『한국어 1』.

주라롱콘문과대학 한국어과(1999), 『한국어 2』.

주라롱콘문과대학 한국어과(1999), 『한국어 3』.